

# 서른살 넘은 광양 '백운아트홀' 40억 들여 확 바꾼다

### 프로젝터·조명·음향 등 최신 설비로 교체...자동화 입장시스템도 내년 1월 완공까지 공연장 임시 휴관...백운플라자 등 경관조명 설치

광양시민을 위한 대표적 문화공간인 '백운아트홀'이 확 바뀐다. 광양제철소는 백운아트홀에 40억원을 들여 4K 스크린 프로젝터·서라운드 스피커 시스템 등 최신 시설을 구축하고 자동화 입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철소에 따르면 백운아트홀 공연장 개선 사업을 위해 30년 넘게 사용한 노후화된 조명 및 음향 시스템을 최신형 기기로 전면 교체한다.

더 생생한 음향과 화려한 조명의 조합으로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고품질 공연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LED 무빙 라이트 설치로 공연 간 더 역동적인 조명 효과를 연출할 수 있으며, 영화관용 서라운드 스피커 시스템을 최신형으로 교체해 입체적인 음향 출력으로 관람객들이 탁월한 현장감을 경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2K급(1080p) 스크린 프로젝터를 디지털 시네마 협회 표준 해상도에 맞춘 4K 초고해상도 프로젝터로 교체해 영화 상영 간 영상 품질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입장 관리 시스템 개편도 이뤄진다.

백운아트홀 설립 이후 최초로 자동화 입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바일 입장권을 도입해 더욱 더 신속한 관람객 입장을 도울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모바일 입장권을 이용해 백운아트홀 출입구에 새로 설치되는 키오스크에서 셀프 체크인을 거친 뒤 입장할 수 있다.

이달 착공을 시작한 공연장 개선사업은 2024년 1월 완공 예정으로 공사 기간 동안 공연장은 임시 휴관에 들어간다.

앞서 1992년 준공된 백운아트홀은 30년 넘게 광양시민들의 정서적 함양과 문화생활 향유의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 2018년 ▲야외 데크 설치 ▲로비 카페 신축 ▲로비 인테리어 교체 ▲공연장 좌석 및 바닥 교체 등 대대적인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며 광양시민들에게 보다 더 품격 있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지난 6월 tvN 예능 '댄스가수 유광단 - 광양 편'이 다녀갔다. 공연장이 광양 지역 내 독보적인 문화 시설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 때문이었다.

광양제철소는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백운아트홀, 백운플라자, 어울림 체육관에 LED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병행해 지역 야경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백운아트홀이 서울 공연장에 견줄 수 있는 최신 시설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광양시민들의 안식처로 기능해 온 백운아트홀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대표적 문화공간인 백운아트홀이 대대적인 시설 개선에 나선다. 백운아트홀 전경.

## 캔버스가 된 들판 ... 뜰 아트로 순천 알리기



순천시는 '순천만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흥내·학동들 7개소에 걸쳐 3만3000㎡(1만여 평)의 면적에 뜰 아트를 조성했다. <순천시 제공>

### 순천시, 9월까지 사진 공모전...흥내·학동들 1만평에 7개소 조성

순천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한 뜰 아트(는 그림)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작품 규격은 작품 당 파일 크기 최소 2MB 이상이며, 1계정 당 1개의 게시물이 인정된다.

시상은 출품된 사진 작품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수, 클릭 수, 댓글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투병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 작품은 뜰 아트 홍보자료로 활용되는 물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에게도 순천만을 널리 공유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유색미를 결합해 순천 만국가정원 스키이쿠브 운행구간에 '순천만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뜰 아트를 흥내·학동들 7개소에 걸쳐 1만여 평의 면적에 조성했다.

뜰 아트에 활용된 '색갈 벼'는 특유의 독특한 색

채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농촌 경관에 인위적인 개발 없이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순천만으로 가는 아름다운 들녘을 연출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뜰 아트는 농촌의 환경을 보전하면서 창의성과 예술적 감각을 결합한 새로운 시각의 농촌 경관농업을 제시하는 길을 개척했다"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찾는 관광객들이 순천만을 방문해 잘 보존된 우리나라 연안습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보성 귀농·귀촌인 무료 영농교육



보성군이 올해 상반기 진행한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1기 교육생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찾아 수업을 받고 있다. <보성군 제공>

### 8월21일~9월11일 총 9회

보성군이 다음 달 16일까지 귀농·귀촌인을 위한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오는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총 9차례 36시간 수업을 받는다.

이 교육은 예비 귀농·귀촌인과 보성군에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새내기 농업인 30명이다. 교육에서는 귀농·귀촌 정책 사업과 농지은행 사

업, 농업인 위한 법률·세무 지식, 창업 계획서 작성 방법, 바·감자·고추 재배 기초기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이론과 실습수업 방식으로 배울 수 있다. 또 지역인과 원만하게 지내는 방법과 소셜미디어(SNS) 활용법, 선배 귀농인 조언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룬다.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1기 교육에는 33명이 참여해 24명이 수료하고, 9명이 이수했다. 자세한 내용은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농촌지원과 농기계운영팀(061-850-57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 '보성몰'에서 경품타세요

### 100% 당첨...28일까지 이벤트



보성군이 오는 28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보성몰'(boseongmall.co.kr) 이용객을 대상으로 여름맞이 경품행사를 한다.

이 기간 보성몰 이용객은 100%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무료 배송 1회 이용권과 최고 10만원 상당 적립금 등 경품이 다양하다.

보성군은 보성몰 신규 회원을 발굴하고, 보성몰 참가 농어업인의 소득 증가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보성몰은 지역에서 생산된 차와 쌀·잡곡, 키위, 토마토, 꼬막, 발효·가공식품 등 160여 업체의 400여 가지 상품을 직거래로 선보이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고흥 민원처리반 '달리는 국민신문고'



### 민원 49건 상담 '호평'

고흥군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한 운영한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호응을 얻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방문해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직접 상담·접수하고, 현장에서 협의, 중재를 통해 민원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 상담 제도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위해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18개 분야의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조사관과 협업기관 상담관 등 총 20명이 방문했다.

지난 12일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총 49건의 민원 상담이 이루어진 가운데 생활법률, 도시수자원, 산업농림환경 분야가 주를 이루었다.

접수된 민원 중 협의상담을 통해 32건이 현장에서 즉시 해결 또는 해소됐으며, 16건은 상담안내를 통한 해결 방법이 제시됐다. 고충민원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어 해결될 예정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 여수시 '자율주행차 만들기 코딩 캠프'

### 중·고생 대상 25일까지 접수

여수시가 8월1일 여름방학 특별 체험 프로그램 '자율주행차 만들기 코딩 캠프'를 연다.

이번 캠프는 미래기술 관련 창작 체험 프로그램 일환으로 중학생 1학년~고등학교 2학년이 대상이다. 지역 내 청소년들이 우리생활에 필수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친환경 자율주행차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코딩과 라이다를 배우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희망 학생은 오는 25일까지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30명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청 평생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여수 미래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이번 캠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세계유산 선암사에서 한 여름 음악 산책

### 순천시, 22일 강선루서 공연 개최

순천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선암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오는 22일 오후 5시 선암사 강선루에서 공연을 개최한다.

공연 관람객은 18일 오후 6시까지 순천시 불로그 및 세계유산축전 누리집(https://www.scwhf.com) 카드뉴스 QR코드를 통해 선착순으로 100명을 모집한다.

'선암사 음악산책'을 주제로 선암사를 오르는 길목에서 마주하는 크로스오버 공연은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선암사의 조목을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선암사에서의 기억이나 간직하고 싶은 사연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어 또 다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계유산축전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청 문화유산과에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아버지학교'서 배우는 자녀 양육·소통법

### 곡성군, 29일까지 참가자 모집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오는 29일까지 '행복한 아버지 학교' 참가자 20명을 모집한다.

올해 8년째를 맞이하는 아버지 학교는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자리 세움'을 주제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아버지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며, 자녀와의 소통을 증진하는 방법 등으로 마련됐다.

강의는 8월10일부터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4층 집단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참여 희망자는 기한 내에 전화 또는 곡성교육포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아버지 학교가 자녀와의 관계 및 양육 방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아버지들에게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박태동 기자 pjtt@